

OP-04  
구연

## Microscrew implant anchorage를 이용한 수직 조절

박효상  
경북대 교정과

구치의 압하이동 혹은 정출, 절치의 압하 또는 정출 등의 치아의 수직조절은 하악 하연각이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수직적인 문제가 심한 환자의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전치의 수직적인 이동은 유틸리티 아치와 같은 통상적인 교정 장치로도 쉽게 얻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치의 수직조절은 통상적인 교정 장치로는 매우 어려운 이동으로 알려져 있다. 한가 구치의 압하이동은 잘 설계된 장치로써 얻어질 수 있었으나 구치부의 전체적인 압하이동을 통한 수직 조절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치과용 임프란트, 미니 플레이트, 미니 스크류, 혹은 마이크로 스크류 임프란트 등의 골격성 고정원 장치는 이러한 압하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예측 가능한 치료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 전치부의 후방이동동안의 구치의 수직적인 위치의 유지 혹은 약간의 압하이동은 하악골의 전상방으로의 회전을 유도하여 안면 측모의 심미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비발치 치료에 있어서 구치부의 압하이동은 전치부 개방교합을 닫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때 생기는 질문은 과연 구치를 압하 이동하여 얻어진 치료효과가 유지기간을 통하여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연자는 구치를 수직 조절하는 치료 순서와 이 치료법의 효율성과 치료효과를 토론하고 치료후 안정성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한다.

OP-05  
구연

## Ideal set-up model making for lingual orthodontic treatment

배기선\*, 김선희  
선부부치과의원

설측 교정치료에서는 기존의 순측 교정치료에 비해 브라켓의 위치가 치료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치료 후의 치아 배열 상태를 미리 재현하는 set-up 모형을 제작하고 정확한 위치에 브라켓을 부착한 후 이를 환자 구강내로 옮기는 간접 접착술식이 주로 사용된다. 현재까지 set-up 모형을 제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소개 되고 있지만 기존의 방법에서는 개개 치아를 배열할 때 해당 치아들의 각도나 경사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제작자의 경험이나 시각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고, 따라서 치아의 배열이 부정확하게 될 위험성이 많았다. 또한 이상적인 set-up 모형은 환자 개개인의 교정 진단 결과 및 이에 따른 술자의 치료 계획을 포함해야 하지만, 실제 교정 진단에서 얻어진 수치들을 set-up 모형에 반영하고 이를 술자가 세운 치료 계획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set-up 모형을 facebow transfer를 통해 교합기에 부착하여 환자 안면 골격과의 관계를 재현해 주어야 하는 등의 복잡한 임상 및 기공 과정이 부가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은 set-up 모형 제작시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set-up model gauge를 개발하였으며, 본 발표에서는 set-up model gauge를 사용하여 환자의 측모 두부방사선규격사진에서의 측정치를 set-up 모형 제작시 직접적으로 반영시키는 방법의 임상적인 적용 가능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OP-06  
구연

## Odyssey to 500 lingual cases

심영석  
미시간 인디애나치과의원  
미래교정연구회

설측교정은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 속에 새로운 biomechanism과 꾸준한 장치개발이 진행되어 왔다. 순측교정에 비해 장치가 치아 뒷면에 부착되기에 나타나는 시술반경의 협소함과 역학적인 문제점들이 아직도 설측교정의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하지만 올바른 mechanic적인 이해와 체계적인 시술경험에 바탕을 둔 설측교정은 오히려 순측교정에 비해 임상적인 장점들이 존재한다. 설측교정은 순측교정에 비해 치료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정확한 진단에 의한 치료전개가 규명되어야만 한다. 치료단계마다 의도한 결과로 이어지는 연속성과 필요한 mechanic적인 고찰이 indirect bonding을 위한 set-up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한다. 치료 단계마다 이용되는 archwire의 특성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서두름 보다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설측교정의 이해를 위해 치료증례들을 세분화해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치료순서를 고찰하고 본원에서 도입하고